

2011.12.12 미래정책연구실

□ FAO, 'South-South Expo' 개최

1. FAO(2011.12.5) 주요 내용

- Global South-South Development Expo(GSSD Expo)가 2011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150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개최됨.
 - GSSD Expo는 2008년 창립되었으며 참여국, UN기관, 기업,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됨.
 - 금년 엑스포는 FAO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20개국 이상의 연합 국가 기관과 파트너들로 구성되었음.
- 금년 GSSD Exp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식량안보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에 목적을 둠.
 -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6개 주제의 포럼이 아래와 같이 구성됨.
 - ※ 1)농업, 식량안보와 개발능력 2)사회적 보호와 식량안보 3)기후변화, 환경과 식량안보 4)영양, HIV/에이즈, 농업과 식량안보 5)지구촌 건강과 식량안보 6)농산업, 재생가능에너지와 식량 안보
- 또한 이번 expo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남협력(South-South cooperation)의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UN 새천년개발목표(Millennium Development Goals)를 수행하려는 노력과 함께 각 나라의 최적의 해결책을 발견코자 함
 - ※ 남남협력(south-south cooperation)은 개발도상국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 간 전문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임.
- Expo는 30개 이상 사례를 전시하여 남남협력(south-south Cooperation)의 강점을 소개하고 이를 남부개발(southern development) 해결책으로 제시함.
 - 이러한 FAO, 남남협력,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발전한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정보를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.
 - UN 개발 프로그램의 준국장 Rebecca Grynsplan는 "개발도상국의 능력향상

및 지역통합, 거대 개발도상국성장, 금융, 기술, 무역의 남남흐름(south-south flows)은 개발도상국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"고 언급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